

# 공존의 미학 '고창 갯벌 가치' 알린다

### 군, 22일 갯벌생태지구서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 업사이클링 등 20개 체험 부스

고창군은 오는 22일 심원면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에서 해양수산부 주관하는 '2024년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연안습지인 '고창갯벌', 내륙습지인 '운곡습지'와 '인천강하구' 총 3곳의 습지보호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고창갯벌은 멸종위기종 포함 164종의 조류가 관찰되는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 기착지이면서 생태계의 보고이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연속유산인 '한국의 갯벌'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습지와 공존하는 우리들, 미래의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습지유전자 표창, 축하공연, 기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특히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홍보캠페인, 업사이클링 체험, 환경교육 등 20여개의 생태관광 체험부스가 준비되며 '함께습지 페스타'가 운영돼



연안습지 고창갯벌 세계유산지역센터 조감도.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세계 습지의 날'은 랍사르협약 서명일(1971년 2월2일)을 기념하며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매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공동주최하며 번갈아 개최해 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 습지의 날이라는 뜻깊

은 기념행사를 고창군에서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내실있는 행사를 준비해 고창을 찾는 방문객들이 고창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마약 원료' 양귀비·대마 재배 집중 단속

### 남원시, 다음달까지 축산 농가·가정 텃밭·비닐하우스 등

남원시가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의 개화시기 및 대마 수확기에 맞춰 실시된다. 가축 사육 농가나 가정 텃밭, 비닐하우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다. 텃밭이나 실내 등에서 손쉽게 재배 가능해 일부 농가 및 가정에서 관상용이나 민간 약재 등의 활용 목적으로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양귀비는 현행법상 목적을 불문하고 재

배할 수 없다.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남원시보건소 의약감진팀 또는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 귀농귀촌학교서 '농촌 정착' 배워요

### 예비 귀농·귀촌인 30명 참여...기초 영농 기술 교육 등



정읍시와 (사)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지난 16일 '2024년 상반기 귀농귀촌학교'를 개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덕천면 황도현관역어울림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오는 30일까지 예비 귀농·귀촌인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귀농·귀촌학교는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귀농 희망자와 초보 귀농인에게 맞는 영농현장에 맞는 체계적인 농업교육을 제공하고, 농촌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는 귀촌인에게는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귀농·귀촌 준비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법과 정읍의 귀농·귀촌 정책, 기초 영농 기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또 농기계 이론·실습, 귀농 선도 농가 사례발표, 선배 귀농인과의 간담회 등이 진행된다. 이수한 교육생들은 수료증(귀농 교육 100시간 인정)을 발급받는다.

이용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 친환경 쌀 서울 학교 급식 공급

### 남농영농조합법인, 16개구 90개 학교...다음달부터 연간 40t

남원시의 친환경 쌀(남농영농조합법인)이 서울 성동구 지역 학교 급식에 공급된다. 남원 친환경 농업 참여 농가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남원시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친환경 쌀 브랜드 '자연선택'는 서류 심사 및 현장·블라인드 시식

평가에서 고품질 쌀로 호평 받고 성동구 학교급식 공급 친환경 쌀로 선정됐다. 6월부터 공급이 시작되며 연간 40t, 2년간 친환경 쌀을 공급한다.

이로써 남원 친환경 쌀은 기존 노원·금천구 등을 포함한 총 16개구 90개교의 초·중·고교생에게

공급된다.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원시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 실천은 물론 농업인 고령화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남원시 친환경 쌀 재배 농업인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이어가기 위해 지속 연구·노력 중"이라며 "계속해서 서울 등 대도시 학교급식 공급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고창의 향기 속 힐링

### 고창 선운사, 10월까지 체험 다채 전통다도·천연염색 등 12회 진행

고창의 대한불교 조계종 선운사가 '2024년 전통 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고창의 향기 속'이란 주제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창군은 대웅보전, 만세루,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도솔암 마애불, 금동지장보살좌상, 석씨원류 등 천년고찰 선운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10월까지 12회에 걸쳐 진행한다.

선운사 만세루에서는 선운사 차밭에서 제조한 발효차를 활용해 차를 시음하고 차담을 나누는 '전통다도체험'이 진행되고 선운사 경내 마당에서는 인경, 천연염색 등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선운사 보물을 찾아라!'는 '부처님오신날'을 맞



선운사를 찾은 방문객이 전통문화 염색체험을 하고 있다.

<선운사 제공>

아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치러졌다.

올해로 8년째 진행되는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문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통문화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증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

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전통산사의 정취를 느끼고 우리 문화유산을 바로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와글와글' 노래 즐기고 경품 타고

### 정읍시, 내일 샘고을시장서 가요제

대한민국 대표 재래시장으로 교과서에 소개됐던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21일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열린다.

오후 2시 개막하는 가요제는 기념식과 시민 노래자랑, 초청가수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민 노래자랑은 샘고을시장 상인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예시는 당일 오전 11시이다.

코미디언 황기순 씨가 사회를 맡고 한혜진, 신인선, 이대원, 허미라(가희) 등 초청가수가 흥겨

운 시장분위기를 이끈다.

이번 가요제는 샘고을시장의 역사와 전통을 널리 홍보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전북상인연합회와 샘고을시장상인회, JTV전주방송이 주최·주관하고 전북자치도와 정읍시가 후원한다.

이흥관 샘고을상인회 회장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도 즐기고 전통시장에서 장도 보며 훈훈한 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가요제를 통해 샘고을시장의 방문객이 늘어나고 활성화되어 더욱 발전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한국토지부동산(주)

## 전원주택 신축

##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